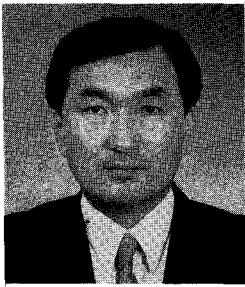


적자 생존(適者生存)



강 용 식

(영농장 대표/본회 육계분과위원장)

일 년 반에 걸친 불황끝에 찾아온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사태로 우리 육계산업은 글자 그대로 아사(餓死) 직전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육계농가의 어려움이란 필설로서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도 내일을 분간할 수 없는 절망의 나날이 지속되면서 암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관을 전전해야 하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언제 우리가 큰 욕심을 내었던가! 삶의 질을 높이기는 커녕 기본적인 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욕심을 낸건 밖에는...

상황이 도래되는 정책자금, 사채·이자, 아이들 학비 등등... 하루하루 밀려오는 중압감 등으로 자살한 농가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소비촉진 홍보행사에 힘입어 요즘 닭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와함께 병아리 가격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닭값이 오른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분위기에 따라 입추를 하려해도 선수금을 요구하는 초생추 대금, 인상된 사료대금 등 악조건 속에 어느 농가가 입추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녕 이 땅위에 육계농가 모두가 잘 살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때만되면 나타나 자기가 이 산업의 구세주인양 계시판을 도배하면서 협회 회원도 아닌자들이 협회의 불만과 욕이나 일삼으면서 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게 현실이

고 보면, 정녕 이 산업의 장래를 걱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육계인들은 없단 말인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작금의 상황을 우린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이번 AI사태를 겪으면서 우린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언론 대책, 지속적인 홍보



등등... 이런 일견의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협회의 중요성, 협회의 필요함, 협회의 역할 등... 우리 모두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말이다.

이 산업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누구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이번에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이다. 문제점을 알기에 희망 또한 있다고 본다. 앞으로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시간낭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릴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자.

AI가 미국 등 선진국에까지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국가에서의 가금류 수출입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도 태국과 미국 등에서 수입하

던 30%에 가까운 닭고기가 수입중단 되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한칠레 FTA협정 등 새로운 무역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수출입 중단은 차후 더이상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다시 닥쳐올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어려움은 따르고 있으나 이럴때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확실히 알리고, 국내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소비가 살아났다고 해서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입식을 늘려갈 경우 다시 불황을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열업체는 물론 육계인들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의식을 바꾸고 노력하면서 개선을 시키자. 우린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도 모이자고, 단합하자고, 허공에 메아리만 치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모처럼 일찍 찾아온 봄을 희망과 함께 맞으려 가보자. **양계**